

## ◆ 10년 6월 고1 20~23번

[20~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반적으로 가치는 반드시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가는 반면에, 사실은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나 많은 철학자들은 사실과 가치가 분명히 구분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들도 사실과 가치 어느 쪽에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입장으로 나누어진다.

첫째로, 사실에 강조점을 두는 입장에서는 가치를 사실로써 설명하려고 한다. 이런 시도를 하는 철학자들의 의도는 가치 판단에 속하는 윤리적인 명제들에 대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탐구를 정당화해 보려는 것이다. 즉, 윤리의 본질, 혹은 윤리에 대한 학(學)의 성립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치를 사실에 환원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 입장의 철학자들은 ‘선하다’라는 윤리적인 가치 개념을 ‘쾌락을 증진시킨다’라는 사실로 설명하려고 한다든가, ‘옳다’라는 도덕적 개념을 개인이나 집단이 ‘자기 보존을 위해 노력한다’라는 등 자연적인 사실에 의해 정의하고자 한다.

이렇게 사실로부터 가치나 당위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입장을 보통 ‘자연주의’라고 부른다. 자연주의는 주로 근대에 들어 인간적인 경험에 근거해서 가치를 설명해 보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이 입장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어떤 철학자들은 규범이나 도덕의 가치들은 결코 사실로 환원되지 않는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직관론자로 불리는 이들은, ‘선하다’라는 성질은 직관에 ㉠ 의해서만 파악되는 것이지, ‘행복하다’든지 ‘바라고 있다’라는 경험적 사실에 의해 정의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가치를 사실에 환원하는 것을 ‘자연주의적 오류’라 비판한다.

둘째로, 가치를 중요시하는 입장에서는 반대로 사실이 항상 엄격한 객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한다. 아울러 많은 경우 우리가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주관적 요소의 개입이 전혀 없는 별거벗은 사실이 아니라 이미 어떤 가치의 옷을 입고 있는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즉, 많은 경우 사실은 가치의 개입을 전제한다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가진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은 논리적으로는 구분이 되지만 실제의 지적인 활동에서는 서로 결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이런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을 가진다. 인간은 과학을 통해서 사실의 구조를 인식하며 윤리를 통해서 가치를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은 적어도 논리적으로는 확연히 구분될 수 있는 별개의 영역이다. 그러나 실제로 한 인간이 어떤 생각이나 판단을 할 때에는 이 두 영역이 서로 맞붙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20. 위 글의 핵심 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실과 가치는 정의할 수 있는가?
- ② 사실과 가치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 ③ 사실과 가치는 분명하게 구분되는가?
- ④ 사실과 가치는 과학적으로 검증되는가?
- ⑤ 사실과 가치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가?

21.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복잡한 지하철에 할머니 한 분이 타시자 민호는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했다.

ㄱ. 민호는 ㉠ 자리를 양보했다. .... 사실 판단  
ㄴ. 민호는 ㉡ 착하다. .... 가치 판단

- ① ㄱ과 ㄴ은 일반적 견해로 판단한 것이다.
- ② 자연주의의 견해로 보면 ㉡는 ㉠로 환원될 수 있다.
- ③ 직관론자의 견해로 보면 ㉡는 ㉠로 환원될 수 없다.
- ④ 사실을 강조하는 철학자들은 ㉡로써 ㉠를 설명하려 한다.
- ⑤ 가치를 중시하는 철학자들은 ㉠에 ㉡의 개입을 전제한다.

22. ㉠의 '만'과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아무래도 나는 너만 못한 것 같다.
- ② 이것들 중에서 하나만 가질 수 있다.
- ③ 이 창문은 두드리기만 하면 열리게 되어 있다.
- ④ 말씀은 고맙습니다만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 ⑤ 제가 자꾸만 이러한 얘기를 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23. ㉡의 이유로 적절한 것은?

- ① 사실과 가치는 도덕과 규범의 문제이기 때문에
- ② 사실과 가치는 결합되어 판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 ③ 사실과 가치는 주관적 요소가 개입되기 때문에
- ④ 사실과 가치는 논리적으로 서로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 ⑤ 사실과 가치는 직관에 의해서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 출전: 김창호 편저. 《내가 아는 것이 진리인가》

- 정답: 20.③ 21.④ 22.② 23.②

【17-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가 일상생활, 특히 학문적 활동에서 추구하고 있는 진리란 어떤 것인가? 도대체 어떤 조건을 갖춘 지식을 진리라고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대응설, 정합설, 실용설의 세 가지 학설이 있다.

‘대응설’에서는 어떤 명제나 생각이 사실이나 대상에 들어맞을 때 그것을 진리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특별한 장애가 없는 한 대상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파악한다고 믿는다. 가령 앞에 있는 책상이 모나고 노란 색깔이라고 할 때 우리의 시각으로 파악된 관념은 앞에 있는 대상이 지니고 있는 성질을 있는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의 감각은 늘 거울과 같이 대상을 있는 그대로 모사하는 것일까?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우리의 감각이 언제나 거울과 같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감각 기관의 생리적 상태, 조명, 대상의 위치 등 모든 것이 정상적이라 할지라도 감각 기관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인간의 감각은 외부의 사물을 있는 그대로 모사하지는 못한다.

‘정합설’은 관념과 대상의 일치가 불가능하다는 반성에서 출발한다. 새로운 경험이나 지식이 옳은지 그른지 실제에 비추어 보아서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의 체계 중 옳다고 판별된 체계에 비추어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새로운 지식이 기존의 지식 체계에 모순됨이 없이 들어맞는지 여부에 의해 지식의 옳고 그름을 가릴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바로 정합설이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옳다고 믿는 명제이지만, ‘모든 사람’ 속에는 우리의 경험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도 포함된다. 이와 같이 감각적 판단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전칭 판단<sup>\*</sup>이나 고차적인 과학적 판단들의 진위를 가려내는 데 적합한 이론이 정합설이다.

하지만 정합설에도 역시 한계가 있다. 어떤 명제가 기존의 지식 체계와 정합할<sup>\*</sup> 때 ‘참’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기존의 지식 체계의 진리성은 어떻게 확증할 수 있을까? 그것은 또 그 이전의 지식 체계와 정합해야 하는데, 이 과정은 무한히 거슬러 올라가 마침내는 더 이상 소급할 수 없는 단계에까지 이르고, 결국 기존의 지식 체계와 비교할 수 없게 된다.

실용주의자들은 대응설이나 정합설과는 아주 다른 관점에서 진리를 고찰한다. 그들은 지식을 그 자체로 다루지 않고 생활상의 수단으로 본다. 그래서 지식이 실제 생활에 있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낳거나 실제로 유용할 때 ‘참’이라고 한다. 관념과 생각 그 자체는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며, 행동을 통해 생활에 적용되어 유용하면 비로소 진리가 되고 유용하지 못하면 거짓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가 행동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행동을 통한 실제적인 결과를 기다려야 비로소 옳고 그름의 판단이 가능하다는 뜻이 된다. 하지만 언제나 모든 것을 다 실행해 볼 수는 없다. 또한 ‘만족스럽다’든가 ‘실제로 유용하다’든가 하는 개념은 주관적이고 상대적이어서 옳고 그름을 ㉠가리는 논리적 기준으로는 불명확하다. 바로 이 점에서 실용설이 지니는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 전칭 판단 : 대상의 모든 범위에 걸쳐서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판단  
\* 정합할 : 모순이 없이 꼭 들어맞을

17. 위 글이 어떤 과제물의 내용이라고 할 때, 주어진 과제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진리 추구의 목적을 구체화하여 설명하라.
- ② 학문의 성립과 진리 사이의 관계를 밝히라.
- ③ 진리 여부의 판정이 필요한 이유들을 설명하라.
- ④ 학문의 발전 과정을 역사적 관점에서 정리하라.
- ⑤ 진리의 판단과 관련된 학설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라.

18.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대응설에서는 사실이나 대상과의 일치 여부로 진리를 판단한다.
- ② 대응설은 인간의 감각이 불완전하다는 점에서 근원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 ③ 정합설에서는 경험을 통한 검증 가능성을 진리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삼는다.
- ④ 정합설은 전칭 판단이나 과학적 판단의 진위를 가리는 데 유용하게 이용된다.
- ⑤ 실용설에서는 실제 생활에서의 유용성을 진리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

19. 위 글을 참조할 때, <보기>의 상황에 대해 바르게 평가한 것은?

< 보 기 >

동일한 문제 상황에서 한 사람은 A라는 신념에 따라 행동하고 다른 한 사람은 A와는 상반되는 B라는 신념에 따라 행동했는데 둘 다 성공하는 경우, 한 사람에게는 A가 진리이고 B는 진리가 아니지만 다른 한 사람에게는 B가 진리이고 A는 진리가 아닌 결과가 나오게 된다.

- ① 실용설이 지닌 한계를 보여 준다.
- ② 대응설의 높은 효용성을 보여 준다.
- ③ 대응설과 실용설의 통합이 불가능함을 보여 준다.
- ④ 정합설은 반드시 대응설에 의해 보완되어야 함을 보여 준다.
- ⑤ 정합설에 따른 진리 판단은 전혀 실용적이지 못함을 보여 준다.

20. 밑줄 친 ‘가리다’의 의미가 ㉠과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내 앞도 못 가리는 처지라 결혼은 꿈도 못 꾸다네.
- ② 키가 큰 사람이 앞을 가리고 있어서 무척 답답했어요.
- ③ 낮을 심하게 가리는 아이라서 남을 보면 울기부터 해요.
- ④ 음식을 가리지 않고 골고루 먹어야 튼튼해질 수 있단다.
- ⑤ 인재를 뽑을 때는 옥석을 가리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17~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는 일상생활이나 학문 활동에서 '진리' 또는 '참'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예를 들어 '그 이론은 진리이다'라고 말하거나 '그 주장은 참이다'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진리'라고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에는 대응설, 정합설, 실용설이 있다.

대응설은 어떤 판단이 사실과 일치할 때 그 판단을 진리라고 본다.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가서 보라'라는 말에는 이러한 대응설의 관점이 잘 나타나 있다. 감각을 사용하여 확인했을 때 그 말이 사실과 일치하면 참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라는 것이다. 대응설은 일상생활에서 참과 거짓을 구분할 때 흔히 취하고 있는 관점으로 ㉠ 우리가 판단과 사실의 일치 여부를 알 수 있다고 여긴다. 우리는 특별한 장애가 없는 한 대상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지각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책상이 네모 모양이라고 할 때 감각을 통해 지각된 '네모 모양'이라는 표상은 책상이 지니고 있는 객관적 성질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책상은 네모이다'라는 판단이 지각 내용과 일치하면 그 판단은 참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응설은 새로운 주장의 진위를 판별할 때 관찰이나 경험을 통한 사실의 확인을 중시한다.

정합설은 어떤 판단이 기존의 지식 체계에 부합할 때 그 판단을 진리라고 본다. 진리로 간주하는 지식 체계가 이미 존재하며, 그것에 판단이나 주장이 들어맞으면 참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물체의 운동에 관한 그 주장은 뉴턴의 역학의 법칙에 어긋나니까 거짓이다'라고 말했다면, 그 사람은 뉴턴의 역학의 법칙을 진리로 받아들여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진위를 판별한 것이다. 이러한 정합설은 새로운 주장의 진위를 판별할 때 기존의 이론 체계와의 정합성을 중시한다.

실용설은 어떤 판단이 유용한 결과를 낼 때 그 판단을 진리라고 본다. 어떤 판단을 실제 행동으로 옮겨 보고 그 결과가 만족스럽거나 유용하다면 그 판단은 참이고 그렇지 않다면 거짓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기 주도적 학습 방법은 창의력을 기른다'라고 판단하여 그러한 학습 방법을 실제로 적용해 보았다고 하자. 만약 그러한 학습 방법이 실제로 창의력을 기르는 등 만족스러운 결과를 낳았다면 그 판단은 참이 되고, 그렇지 않다면 거짓이 된다. 이러한 실용설은 새로운 주장의 진위를 판별할 때 결과의 유용성을 중시한다.

17. 위 글의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구체적인 예를 들어 추상적인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 ② 기존 이론의 문제점을 밝히고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 ③ 현상의 원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 ④ 시대적 흐름에 따른 핵심 개념의 변천 과정을 규명하고 있다.
- ⑤ 다양한 관점들을 소개하면서 이를 변증법적으로 절충하고 있다.

18. ㉠의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우리의 지식이나 판단은 항상 참이다.
- ② 우리의 감각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반영한다.
- ③ 우리는 사물의 전체를 알면 부분을 알 수 있다.
- ④ 우리의 주관은 서로 다른 인식 구조를 갖고 있다.
- ⑤ 우리의 감각적 지각 능력은 대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19. 위 글에서 <보기>의 ㉡와 ㉢에 각각 관련되는 것은?

<보 기>

- 17세기에 스테노는 관찰을 통해 상어의 이빨과 설석(舌石)이라는 화석이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 사실을 근거로 그는 화석이 유기체에서 기원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는 ㉡ 판단을 내렸다.
- 20세기 초에 베게너는 지질학적 조사 결과를 근거로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가 과거에 한 대륙이었다가 나중에 분리되었다는 주장을 했다. 하지만 당시의 지질학자들은 대륙은 이동하지 않는다는 통설을 근거로 그의 주장이 틀렸다는 ㉢ 판단을 내렸다.

- |       | ㉡   | ㉢ |
|-------|-----|---|
| ① 대응설 | 정합설 |   |
| ② 대응설 | 실용설 |   |
| ③ 정합설 | 대응설 |   |
| ④ 정합설 | 실용설 |   |
| ⑤ 실용설 | 정합설 |   |

20. 위 글에서 언급한 여러 진리론에 대한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수학이나 논리학에는 경험적으로 확인하기 어렵지만 참인 명제도 있는데, 그 명제가 진리임을 입증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대응설에서는 발생한다.
- ②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이론 체계가 아직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그 판단의 진위를 판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정합설에서는 발생한다.
- ③ 새로운 주장의 진리 여부를 기존의 이론 체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기존 이론 체계의 진리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정합설에서는 발생한다.
- ④ 감각으로 검증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한 관념은 그것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거짓으로 보아야 하는 문제가 실용설에서는 발생한다.
- ⑤ 실제 생활에서의 유용성은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떤 지식의 진리 여부가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가 실용설에서는 발생한다.

[21~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떤 명제가 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중 하나가 정합설이다. 정합설에 따르면, 어떤 명제가 참인 것은 그 명제가 다른 명제와 정합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정합적이다’는 무슨 의미인가? 정합적이라는 것은 명제들 간의 특별한 관계인데, 이 특별한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 전통적으로는 ‘모순 없음’과 ‘함축’, 그리고 최근에는 ‘설명적 연관’ 등으로 정의해 왔다.

먼저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정의하는 경우, 추가되는 명제가 이미 참이라고 ㉠ 인정한 명제와 모순이 없으면 정합적이고, 모순이 있으면 정합적이지 않다. 여기서 모순이란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와 “은주는 민수의 누나가 아니다.”처럼 ㉡ 동시에 참이 될 수도 없고 또 동시에 거짓이 될 수도 없는 명제들 간의 관계를 말한다.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정의하는 입장에 따르면,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가 참일 때 추가되는 명제 “은주는 학생이다.”는 앞의 명제와 모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합적이고, 정합적이기 때문에 참이다. 그런데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이해하면, 앞의 예에서처럼 전혀 관계가 없는 명제들도 모순이 ㉢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두 정합적이고 참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긴다.

이 문제를 ㉣ 해결하기 위해서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함축은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가 참일 때 “은주는 여자이다.”는 반드시 참이 되는 것과 같은 관계를 이룬다. 명제 A가 명제 B를 함축한다는 것은 ‘A가 참일 때 B가 반드시 참’이라는 의미이다.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이해하면, 명제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가 참일 때 이와 무관한 명제 “은주는 학생이다.”는 모순이 없다고 해도 정합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은주는 학생이다.”는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에 의해 함축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정의할 경우에는 참이 될 수 있는 명제가 ㉤ 과도하게 제한된다. 그래서 ‘정합적이다’를 설명적 연관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명제 “민수는 운동 신경이 좋다.”는 “민수는 농구를 잘한다.”는 명제를 함축하지는 않지만, 민수가 농구를 잘하는 이유를 그럴듯하게 설명해 준다. 그 역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두 경우 각각 설명의 대상이 되는 명제와 설명해 주는 명제 사이에는 서로 설명적 연관이 있다고 말한다. 설명적 연관이 있는 두 명제는 서로 정합적이기 때문에 그중 하나가 참이면 추가되는 다른 하나도 참이다. 설명적 연관으로 ‘정합적이다’를 정의하게 되면 함축 관계를 이루는 명제들까지도 ㉥ 포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함축 관계를 이루는 명제들은 필연적으로 설명적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정합적이다’를 설명적 연관으로 정의하면, 함축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많은 수의 명제를 참으로 추가할 수 있다.

그러나 설명적 연관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연관의 긴밀도가 어떻게 측정될 수 있는지는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다. 이 문제와 관련된 최근 연구는 확률 이론을 활용하여 정합설을 발전시키고 있다.

2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정합설에서 참 또는 거짓을 판단하는 기준은 명제들 간의 관계이다.
- ② 정합설에서 이미 참이라고 인정한 명제와 어떤 새로운 명제가 정합적이면, 그 새로운 명제도 참이다.
- ③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이해했을 때 참이 아닌 명제는 함축으로 이해했을 때에도 참이 아니다.
- ④ 함축 관계에 있는 명제들은 설명적 연관이 있는 명제들일 수는 있지만 모순 없는 명제들일 수는 없다.
- ⑤ ‘정합적이다’를 설명적 연관으로 이해한다고 해도 연관의 긴밀도 문제 때문에 정합설은 아직 한계가 있다.

22. ㉡의 사례로 적절한 것은?

- ① 민수는 은주보다 키가 크다. - 민수는 은주보다 키가 크지 않다.
- ② 민수는 농구를 좋아한다. - 민수는 농구보다 축구를 좋아한다.
- ③ 그것은 민수에게 이익이다. - 그것은 민수에게 손해이다.
- ④ 오늘은 화요일이 아니다. - 오늘은 수요일이 아니다.
- ⑤ 민수의 말이 옳다. - 은주의 말이 틀리다.

23. <보기>의 명제를 참이라고 할 때,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3점]

—<보 기>—

○ 우리 동네 전체가 정전되었다.

- ①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이해하면, “우리 동네에는 솔솔이 있다.”를 참인 명제로 추가할 수 있다.
- ②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이해하면, “우리 집이 정전되었다.”를 참인 명제로 추가할 수 있다.
- ③ ‘정합적이다’를 설명적 연관으로 이해하면, “예비 전력의 부족으로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를 참인 명제로 추가할 수 있다.
- ④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이해하면, “우리 동네에는 솔솔이 있다.”를 참인 명제로 추가할 수 없다.
- ⑤ ‘정합적이다’를 설명적 연관으로 이해하면, “우리 집이 정전되었다.”를 참인 명제로 추가할 수 없다.

24. 문맥상 ㉠~㉥을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는 것은?

- ① ㉠: 받아들인
- ② ㉡: 일어나지
- ③ ㉢: 밝혀내기
- ④ ㉣: 지나치게
- ⑤ ㉤: 아우를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는 흔히 권력을 양도하거나 교환할 수 있는 재화나 소유물로 생각한다. ‘기득권층이 개혁의 발목을 잡아서’라는 말은 권력의 소유 개념에서 ㉠ 나온 말이다. 마치 권력이 손에서 손으로 건네줄 수 있는 물건이라도 되는 것처럼 여기면서 일단 어떤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강제로 그것을 빼앗지 않는 한, 영원히 그 사람의 소유라고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푸코는, 권력은 소유물이 아니라 전략이며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대부분 권력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이 모인 사회는 지배·피지배의 이분법적 관계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물코처럼 무수한 복수의 권력으로 뒤덮여 있다.

그런데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서로 간에 미치는 힘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불균형을 이룬다. 그 비대칭의 불균형한 힘의 관계가 곧 ‘**권력관계**’이다. 힘의 [A] 불균형이 있다면 친구 사이나 직장 동료 사이의 관계도 역시 ‘권력관계’이다. 권력은 소유라기보다는 행사되는 것이고, 점유가 아니라 사람들을 배치하고 조작하는 기술과 기  
능에 의해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권력’은 ‘지식’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인간의 육체에 직접적인 강제를 가하는 왕조시대의 권력으로부터 사회 전체에 널리 퍼져 교묘하게 사람들을 감시하는 근대적 규율관계로 넘어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지식 덕분이었다. 과거의 권력은 물리적 폭력에 가까웠다. 힘은 있을지언정 지적인 것과 거리가 멀었다. 그러나 근대 이후의 권력은 이와 다르다. 무력으로 권력을 얻었다 하더라도 권력자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주변에 온갖 학자들을 불러 모은다. 논리적으로 설득하지 못하는 물리적 폭력은 상대방의 진정한 복종을 얻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권력과 관계있는 지식의 가치 판단 기준은 ‘진실’이다. 그런데 ‘진실’은 과연 진실일까? 한 사회의 지적 지배권을 장악한 사람들이 ‘진실’이라고 결정하는 것이 바로 진실이 되는 게 아닐까? 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고 개인적인 축재를 한 것에 대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추구하는 것이 뭐가 나쁘냐고 하는 사람들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으면, 그 사회는 그것을 범법이 아니라 능력으로 인정할 것이다. 이렇듯 지식은 자율적인 지적 구조라기보다는 사회 통제 체계와 연결되어 있다. 한 사회에서 ‘진실’, ‘학문’, ‘지식’이란 결코 순수한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언제나 권력과 욕망에 물들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상관관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할 것이다.

18. 위 글을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할 때, 그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권력관계는 어떻게 변해 왔는가?
- ② 권력의 실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 ③ 권력을 소유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 ④ 권력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 ⑤ 권력을 소유물로 보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19. 위 글을 읽고,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어느 것이나 빌리지 아니한 것이 없다. 임금도 백성으로부터 힘을 빌려서 높고 부귀한 자리를 가졌고, 신하는 임금으로부터 권세를 빌려 은총과 귀함을 누리며,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지어미는 지아버로부터, 비복(婢僕)은 상전으로부터 힘과 권세를 빌려서 가지고 있다.

그 빌린 바가 또한 깊고 많아서 대개는 자기 것으로 하고 끝내 반성할 줄 모르고 있으니, 어찌 미혹(迷惑)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다가도 혹 잠깐 사이에 그 빌린 것이 도로 돌아가게 되면, 만방(萬邦)의 임금도 외톨이가 되고, 백승(百乘)을 가졌던 집도 외로운 신하가 되니, 하물며 그보다 더 미약한 자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 ① 권력을 얻기 위한 지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군.
- ② 권력을 가진 자의 물리적인 폭력을 비판하는 말이군.
- ③ 권력을 소유의 개념으로 여기는 것을 경계하고 있군.
- ④ 권력이 욕망에 물들어 진실성을 잃게 될 것을 염려하는군.
- ⑤ 권력관계를 지배와 피지배의 이분법적 구조로 이해하는군.

20. [A]의 '권력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방학을 맞아 영희는 친구들과 함께 근처 양로원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하였다.
- ② 한우 유전자 연구소 강 박사는 유전자 변형을 통해 유전형질이 우수한 소를 생산하였다.
- ③ 김 과장은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에 따라 동료들과 협의하여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였다.
- ④ 인터넷 이용자들은 자신의 모습과 닮았거나 자신이 원하는 모습의 캐릭터를 아바타에 반영한다.
- ⑤ 연극반 반장인 철수는 학예제를 앞두고, 연극반원들에게 담당 역할을 분배하여 책임을 다하도록 했다.

21. ㉠과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그 해괴한 소문은 어디서 나왔느냐?
- ② 올해 시장에 새로 나오는 상품이 있느냐?
- ③ 비가 그치자 아이들이 집 밖으로 뛰어 나왔다.
- ④ 김 의원이 정계에 나온 지 어느덧 10년이 흘렀다.
- ⑤ 나무의 싹은 한겨울 눈서리를 이겨내고 나오는구나!